

《책이란?》

1. 책의 발전



1)의사전달과 문자의 발달

태초의 인류는 서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단순한 몸짓이나 음성을 그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 자신의 의사를 일시적이 아닌 영구히 기록하기 위해 간단한 기호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사전달의 기록수단은 그림에서 문자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것을 적어놓을 대상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기록매체의 발달

초기에는 생활 주변의 큰 바위나 동굴에 문자와 그림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 할수록 이러한 문자, 즉 지식의 보관성과 이동성의 대두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기록장이 되는 매체는 동굴이나 바위에서 작은 돌, 조개, 새끼줄 등으로 점점 가벼워지고 얇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작고 얇은 기록 매체는 가죽이나 실 등으로 묶여져 기록의 묶음이 되는데 이를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매체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점토 판본에 기록되게 되고 여기에서 더 발전하여 대나무 가지와 가죽 그리고 비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후 중국 후한시대의 채륜이 종이를 발명하면서 책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2.책의 어원

중국의 冊이라는 글자에는 대나무를 엮은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종이 생겨나지 않았을 때 너도밤나무 껍질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너도밤나무를 고대 영어는 「boc」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book이 여기로부터 유래하였고, 프랑스어 livre는 라틴어의 리베르에서 유래했습니다. liber는 목재와 표피사이의 얇은 껍질을 뜻합니다. 책을 뜻하는 그리스어 비블리온(biblion)은 파피루스라는 뜻을 지닌 빌블로스(biblos)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3.책이란?

1)유네스코의 정의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르면 책은 펼쳐보기 용이하고 운반가능하고 목적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49쪽 이상 분량으로 속장과 보호할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판되어져 일반인이 사용하며, 비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인류의 사상, 행동, 경제 등 모든 인간의 지적활동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서지학에서의 책

책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술하는 학문인 서지학에서 바라보는 책이란, 문자를 수단으로 표현한 지적 소산이 담겨진 물리적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교실 속 책 만들기 안의 책의 정의

‘교실 속 책 만들기’ 안의 책의 정의는, 수업 사전활동, 수업활동, 학습 정리 등을 포함한, 모든 교육 활동 속에서, 아이들이 글과 그림으로 만든 4쪽 이상의 학습결과물을 말합니다.

4.책의 유형



1)코덱스(codex)

코덱스는 낱장을 묶어 께맨 형태인데 파피루스 두리마리보다 보존이 용이하고 훨씬 견고하며 양손에 들고 읽을 수 있는 로마의 발명품입니다. 이는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취급이 간편하여, 기독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폴드북(fold book)

폴드북은 한 장이나 여러 장의 종이를 접어 만든 형식으로, 코덱스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종이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 다양한 교육활동과 접목시키기에 용이합니다. 그리하여 쉽게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큰 책 유형입니다.



3)팬(fan)

팬은 한쪽이나 중심을 고정시킨 형태로, 동양의 부채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점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블라인드(blind)

블라인드는 양쪽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흔히 창문에서 볼 수 있는 블라인드와 같은 형태입니다.



5)두루마리(scroll)

이집트의 파피루스로 만든 책에서 보관하기 위해 쓰였던 방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정으로 넘어가 주세요.”

